

##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출애굽기 16:1~12



그림1



**신뢰**의 정의: 굳게 믿고 의지함.

내가 아는 것 만큼 신뢰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희미하게 아는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광야 백성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한 1차적인 이유는 \_\_\_\_\_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_\_\_\_\_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시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_\_\_\_\_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불신과 원망의 모습입니다.

**질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 할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의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원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_\_\_\_\_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이 \_\_\_\_\_나가서, 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_\_\_\_\_하여 보겠다.

**응답 :**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

**명령 :** 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러 들일 것.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 출애굽기 16장 20절

20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_\_\_\_\_까지 그것을 남겨 두었다. 그랬더니, 남겨 둔 것에서는 \_\_\_\_\_가 생기고 \_\_\_\_\_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을만큼 거두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조금 더 조금 더 하나라도 더 거두어 모아 자신들의 양식을 저장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려지는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모레도 아니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자신의 손의 부지런함을 따라 살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인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한 그 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 할 수 있 수 있습니다.

### 마태복음 4장 4절

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_\_\_\_\_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_\_\_\_\_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 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_\_\_\_\_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_\_\_\_\_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_\_\_\_\_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_\_\_\_\_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_\_\_\_\_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